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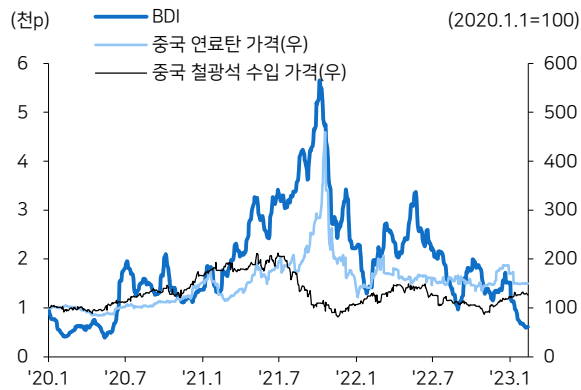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2. 14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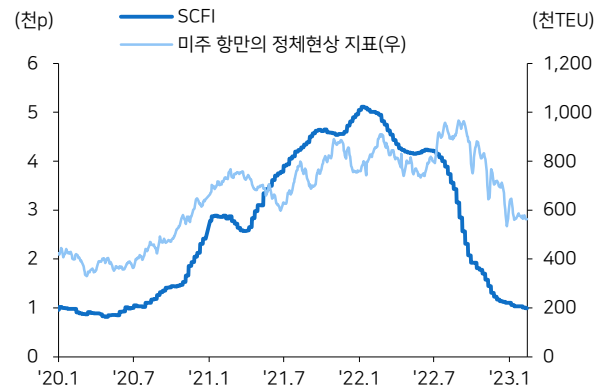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616.0p(+1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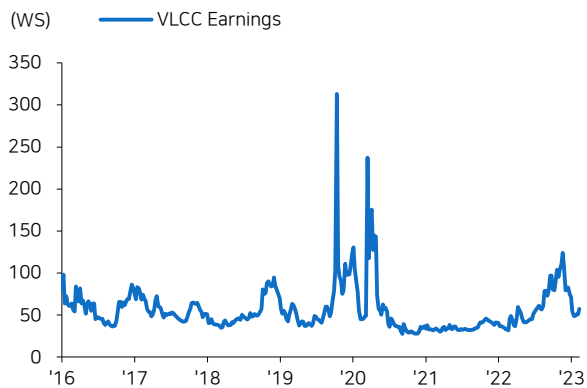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5.2p(-11.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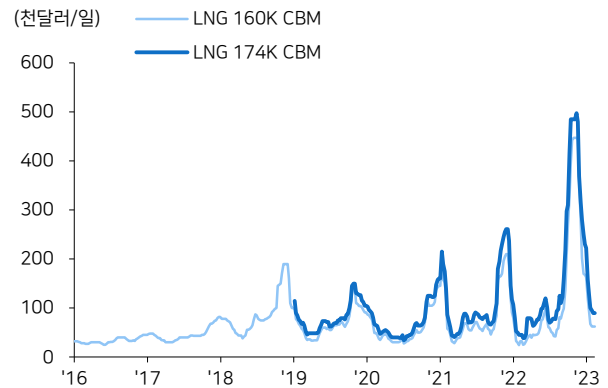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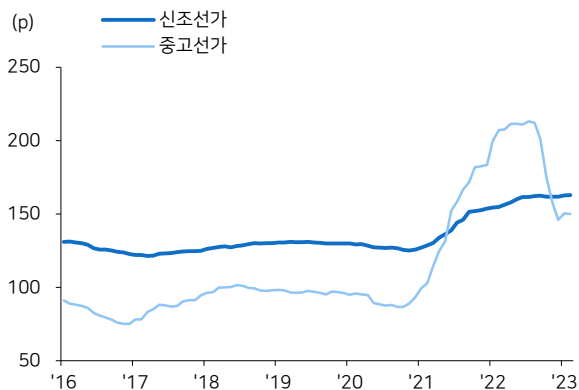
57.4p(+6.7p WoW)



LNG Spot 운임

62.5p(+0.0p WoW)
90.0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3.2p(+0.1p WoW)
150.0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72.3p(-)
103.8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1척 3,145억원에 계약

대우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선 1척을 3,145억원(약 2.49억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됨. 2027년 3월말까지 인도될 예정임. (연합뉴스)

Golden Ocean claims top bulker spot with \$291m sextet purchase

Golden Ocean Group이 Newcastlemax 6척을 매입하며 재화중량톤수(DWT)기준 상장사 중 최대 벌크선사가 되었다고 보도됨. 208,000DWT급 현대식 스크러버가 부착된 Newcastlemax 6척으로 총 2.91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언급됨. VesselsValue에 따르면 현존하는 스크러버 장착 Newcastlemax는 모두 중국산으로 평균 선령은 2.5년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2023년 탱커 발주 증가 시작

2023년에는 후판가격이 하락하고 조선소 건조 설비에 여유가 생기며 선가가 5~7% 하락세로 신조 탱커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도됨. VLCC는 시황 약세 기조에 따라 발주 속도가 느리겠지만, suezmax, aframax, LR2 탱커 발주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전망으로 알려짐. 러시아산 원유의 아시아항 향로 재편으로 시장중심이 중형급 유조선으로 편향되고, 2023년 VLCC 수요는 전년비 6.6% 감소한다고 언급됨. 러시아 원유의 중국 및 인도 수출 물량은 증가하겠지만,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은 끝났다고 설명함. (선박뉴스)

Freeport LNG resumes exports after eight-month break

Freeport LNG 터미널이 마침내 재가동 되었다고 보도됨. 지난 2월 9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선적을 승인한 바 있음. 2월 11일, 9개월만에 첫 수출물량을 BP의 155,000CBM급 선박에 선적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1월말부터 대기하고 있었다고 알려짐. 두번째 180,024CBM급 선박도 선적했다고 알려짐. 브로커들에 따르면 15MTPA급 터미널의 가동재개로 대서양지역 LNG선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Abu Dhabi giant Adnoc Drilling lines up extra \$1 billion spend to grow rig fleet

Adnoc Drilling이 향후 2년간 리그 선대 확대에 최대 25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도됨. 월요일(13일) 실적발표에서 2024년까지 2년간 CAPEX를 20~25억달러로 제시해 기존 가이드런스 대비 약 10억달러 상향했다고 알려짐. 2022년에 16개 리그를 도입해 세계 최대 선대인 115척을 보유하게되었다고 알려짐. 2024년까지 142척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짐. IPO 당시 제시했던 2030년까지 127척을 확보하려던 계획에서 변경되었다고 언급됨. (Upstream)

한국인 중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이번주 해제 예상"

중국이 한국인의 단기비자 제한을 이번주 내로 해제할 것으로 보도됨.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번주 안에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해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언급함. 언제 풀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것으로 언급됨. 다만, 기존 이미 승인됐거나 심사 진행 중이던 비자도 반려되거나 보류돼 이를 먼저 처리해야해 신규 발급을 신청해도 비자 발급까지 늦어질 것으로 언급됨. (JTBC뉴스)